

문화 입은 목포 원도심이 살아난다

칙칙했던 목원동 일대 골목길 화사한 변신 주목

관광루트 테마거리·이야기가 있는 자드락 골목길 조성 마무리
이매방·차법석 등 스토리텔링...벽화마을·마인게터 불거리 풍성
4.6km 옥단이길 다양한 즐거움 만끽...방문객 급증 핫플레이스로



옥단이 캐릭터

200억 원. 목포시가 2014년부터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현재까지 140억 원이 투입됐다. 덕분에 목포의 대표 원도심인 목원동 일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관광루트 테마거리까지 조성되면서 생기가 돌고 있다.목포 도시재생 사업은 목원동 일원 60만㎡를 대상으로 마중물 사업 10개 분야에 28개 세부사업이 진행된다.

28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 '관광루트 테마거리'와 '이야기가 있는 자드락 골목길' 조성사업 등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칙칙했던 골목길이 화사하게 변신, 주목받고 있다.

일제 강점기 근대문화유산을 비롯해 유달산·노적봉 등 자연자원, 이매방·차법석·김우진·허건·박화성 등 인물 스토리텔링을 통합·연계해 독창적 루트를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톡톡 튀는 관광루트 옥단이길=원도심에 산재된 주요 거점 19개소를 걸어서 탐방할 수 있도록 연결한 관광루트가 '옥단이길'이다. 총 연장은 4.6km. 소요시간은 3시간 정도다.

옥단이는 차법석의 작품 '옥단어'에 나오는 인물. 1930년대 초반부터 해방 무렵까지 활동한 목포의 4대 명물(역전의 멜라공, 평화극장 외팔이, 대성동 쥐약장수) 중 한 명으로 물장수였다.

옥단이길은 큰 틀에서 유달산으로 오르는 3개 노선과 이야기가 있는 자드락 골목길, 체험공간 3개 노선 등 총 7개 코스로 나뉜다. 관광객들에게 도보 여행의 지루함을 탈피하고 다양한 경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유달산으로 오르는 3개 노선은 목마르뜨거리, 구름다리거리, 김우진거리로 이름이 붙여졌다.

고은시인과 법정스님의 만남이 이뤄진 정광 정혜

원이 목마르뜨거리의 주요 거점이다. 고은과 법정의 만남을 스토리텔링한 포토 존,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형상화한 비움의 벽면과 비움의 종 조형물이 불거리다. 노적봉 예술 공원과 연계해 목포 문화에 술인들의 세계로의 도약을 염원하는 세계 예술인 변화와 옥단이 윈터 등도 조성됐다.

김우진거리에는 김우진의 작품세계와 삶을 보여준 벽화골목을 비롯해 어린이들의 창작활동과 문학에 대한 관심을 키우기 위한 김우진 정원(포토존, 책상, 책, 책장 등)이 눈길을 끈다.

구름다리거리는 색을 테마로 하는 거리공간으로 구름다리에 무지개 색을 입혔다. 하늘이 내린 춤꾼 이매방, 한국을 대표하는 극작가 차법석 등을 파타일 및 스테인리스강판 실크인쇄 등으로 꾸며 냈다.

또 체험이 가능한 주요 3개 노선은 마인게터, 벽화마을, 남진생가 등 3곳이다.

◇이야기가 있는 자드락 골목길=목원동의 사라져 가는 생활문화와 자원을 되살리는 것이 자드락 골목길의 핵심 키워드다.

자드락 골목길은 '콩나물 골목'과 '달성마을'로 짜여졌다.

콩나물 골목에는 개항기에 콩나물 재배로 생계를 이어간 이야기를 담아냈다. 콩나물을 주제로 한 벽화와 함께 구종명 비(碑)의 스토리를 담아낸 벽화도 발길을 붙든다.

또 달성마을에는 영화 클래식 촬영지를 소개하고, 마을이 형성된 시기의 시대상을 재미있게 벽화로 표현해 냈다.

◇주민의 손으로 꾸민 벽화마을='목원 벽화마을'은 주민 제안공모로 주민이 직접 꾸몄다.

원도심의 심장인 목원동 골목길 벽면에 목원동의 정취, 역사문화, 자연환경을 녹여낸 다양한 이야기에 재미를 곁들인 감성벽화가 핵심이다. 명화와 유명 캐릭터, 숨은 그림 찾기, 바다이야기 등 각각 테마가 있는 이야기를 골목구간마다 풀어냈다.

최근 들어 이곳 투어를 나서는 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지난 2월 이후 현재까지 4000여명이 다녀갔다.

목포시는 이를 계기로 오는 10월 항구축제에 맞춰 목포를 소재로 한 단편영화나 추억의 옛 영화를 상영하는 축제를 추진 중이다.

한편,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은 관광루트 테마거리인 옥단이 길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스토리북인 '목원동 이야기' 책자와 목원동 관광명소 지도를 제작해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고, 골목길 해설사 17명을 양성해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1-243-8994.

/목포=글·사진 교규석 기자 yousou@



고은 시인과 법정 스님의 만남을 스토리텔링한 포토 존.



법정의 무소유를 상징하는 비움의 공간으로 손도장에 손을 대면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목포 4대 명물 가운데 한명인 옥단이의 물지게 체험 공간.

목포 항구축제 성공 위해 60여개 프로그램 심의

목포시가 10월 27일 열리는 목포항구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최근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무더운 여름을 피해 처음으로 선선한 가을에 열리는 올해 축제를 풍요롭고 북적북적한 항구 모습으로 재현하고, 성어기에 열리는 '파시'의 콘텐츠를 강화할 기본계획과 60여 개 프로그램을 심의했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축제 주 무대는 파시를 부각하면서 축제 기간 내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각종 공연이 펼쳐진다.

대표적 차별화 프로그램인 파시 로드에선 전통·근대·현대 등 시대별로 연출된 공간에서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길놀이에선 '춤 신·춤 왕 포토 제니 선발대회' 등 경연과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카니발이 펼쳐지고, 삼학도 중앙공원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지난해보다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진 주 무대에서는 축제 전야제인 '목포가요제'를 시작으로 개막식 '항구음악회', 폐막식 '바다 콘서트' 등 각종 단체 및 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이 펼쳐져 항구 불꽃 소와 함께 가을밤을 붉게 수놓을 예정이다.

바خور 시장은 "처음으로 가을에 개최되는 항구 축제가 항구도시의 매력을 발산하고 목포의 맛과 멋, 낭만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 목포항구축제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가시화 서산·온금지구 재개발도 본격화

목포시 대표적 숙원사업인 임성지구 도시개발과 서산·온금 재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목포시에 따르면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일정을 앞당겨 연내 개발사업 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현재 LH측의 경영투자 심의가 진행 중이며 9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최근 LH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앞으로 예상되는 분쟁 등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사업설명회가 열리면서 9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400여세대 원주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9월부터 조차 용역에 들어가 2019년 보상이 시작되고 2020년 착공에 들어간다.

또 서산·온금 지구 재개발 사업도 본격화된다.

최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목포시가 제출한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경관 확보를 위해 주상복합건물과 공동주택 층수는 25층에서 21층으로, 18층은 15층으로 하향 조정되고 학교 예정 부지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시공사까지 나타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한편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초 착공된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호텔 매매 임대 교환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지리산 온천지구내, 대형모텔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상 4층, 객실58개
- 전체 리모델링 (6억 투자)
- 연수원 등 기타시설 가능
-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 시세/감정가 - 20억, 매매 - 18억 (융자 8억포함)
- 임대/교환 협의 H. 010-3605-5000

산수유/벚꽃/매화축제,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5개월) 영업으로 순수익 4억 가능 !

